

30강 - 부적격 교사

■ 학습목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품행을 갖추지 못한 소위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원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 숙지한다.

■ 학습내용

부적격 교사의 개념과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을 알아보고 부적격 교사의 유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 용어의 정리

뇌물 :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자 뇌물공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수뢰후부정처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죄 ·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중뢰죄 : 뇌물을 약속 ·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증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례 :

<사건의 개요>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 A는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방학 중 받은 '교원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일반 연수'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수 중에서 현재의 아동들에게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지도방법에 따라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아동들에게 '인터넷에는 O양의 비디오도 있는데 오늘 하루는 용서해 줄테니 보고나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성에 관한 초기화면을 검색하는 장면을 알려주었고, 음란 사이트의 화면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A교사는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A의 재심청구(교원소청심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사건의 쟁점>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 변경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의 결말>

학생들에게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으로 재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A의 재심청구(교원소청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의 의견>

교사가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비록 그 교사가 성교육에 대하여 '현재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교사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들은 마치 포르노의 설명과 같은 것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수준의 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원색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성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전면에 걸쳐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사의 판단 하에 해당과목과 관련되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교과와 청구인이 실시한 성교육과의 관련여부는 차치하고, 학교장의 승낙 없이 교과시간표에 없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A교사는 사회과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인끼리도 차마 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난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 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실이 TV, 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과 학교교육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등, 이 교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본 학습>

1. 부적격 교사의 개념 및 효과적인 교사의 특징

부적격 교사란 교사로서 도덕적·윤리적 인성 및 품성이 적합하지 못하고 학생지도·업무수행·대인관계 등의 측면에서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말한다.

교육활동에 관하여 효과적인 교사의 특징으로써 ① 수업 시작 시 학생들에게 수업목표 진술, ② 다양한 기자재 사용, ③ 수업시작 전 수업을 뒷받침할 기자재 준비, ④ 학생들에게 명확한 방향 제시, ⑤ 명쾌한 정보 제공 ⑥ 학습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탐색하게 함, ⑦ 수업 중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유도, ⑧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함, ⑨ 교수 내용을 학생의 흥미와 적절한 관련시킴, ⑩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성취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활동, 특히 교사의 학습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부적격 교사의 유형

가. 문제교사의 유형

첫째 성폭력 교사,

둘째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하는 교사, 셋째 상습적으로 충지를 받는 교사, 넷째 학습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 교사를 들고 있다.

문제교사는 법규적인 면, 행동적인 면, 인성적인 면에서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1) 법규적 문제 유형

채무, 치정 등의 법률 위반, 금품수수, 비리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규적 문제를 일으킨 교사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금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교직을 떠나야 하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 가중, 보증과 대출로 인한 파산 등의 원인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면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교직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2) 행동적 문제 유형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사, 빈번한 무단결근, 성희롱, 상습도박,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 관련된 문제 행동을 보인 교사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체벌관계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서 자주 폭력적 체벌, 성폭력적 체벌, 습관성 체벌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사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분풀이성 체벌습관이 있는 교사도 있다.

(3) 인성적 문제 유형

정신적 장애, 인간관계, 관리자의 운영 방침 상시적 위배, 과도한 업무회피,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심각하게 어려운 폐쇄적 성향 등의 인성적 문제를 가진 교사이다. 정신적 이상 문제로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상적으로 담당해야 할 학교의 업무분장에 다른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이행할 정상적 사고가 어려운 교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교사로 인해 다른 동료 교사가 그 업무를 더 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 무능력 교사의 유형

첫째 학력의 부족, 수업 지도 면에서 무능하여 학습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교사,
둘째 학생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학급 경영상이나 학생 지도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
셋째 상식이 없거나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가질 수 없어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교사,
넷째 독선적이어서 타인과 협조하지 않고 동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
다섯째 근무, 복무나 품행에 문제가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뢰가 없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이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 업무 등의 부분에서 지도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되어야 하는 교사이다.

(1) 학습지도 능력 부족 유형

교육력의 부족, 수업 지도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여 학습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교사이다. 교사로서 학생에게 전달할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법이 부족하여 학습 내용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2) 생활지도 능력 부족 유형

학생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학급 경영상이나 학생 지도상 교사로서의 통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이해가 부족하여 정서 지도에 한계가 있고 수업시간이나 교실의 공동생활을 운영·지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3) 대인관계 능력 부족 유형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특성으로 교사 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교사이다. 이러한 교사는 동료와 마찰이 끊이지 않아 학교단위의 관리자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동료 교사와의 신

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고립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 업무 능력 부족 유형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사이다. 업무분장에 의해 주어진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파악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동료와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회피하는 성향으로 업무추진에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 복무태도 불량, 교사로서의 언행 부족 등 품행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 동료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하는 교사이다.

3. 부적격 교사의 범위

가. (1) 전문지식 미비나 새로운 지식습득에 저항하거나 수업계획이 부재하는 등의 수업능력 부족 교사, (2) 학생에 냉소적인 태도, 폐쇄적인 교실행동, 생활지도에 무관심한 학생생활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 (3)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교사, (4)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학부모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시비를 붙거나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부족한 교사, (5) 교사 개인적인 인성 및 자질이 부족한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위법한 행위조건에 해당하는 부적격 교사의 개념에는 주로 행정가로서의 자질과 교사로서의 윤리·도덕적 자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적격교사라고 볼 수 있는 교사는 성폭행교사,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수준의 체벌을 하는 교사, 상습적으로 충지를 받는 교사, 학습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 교사, 학습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과지식과 지도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교사들이다.

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거나 부족할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대상규정을 교사의 자질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능력이 부족하다면 공무원복무규정의 의무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규정을 적용해 왔으며,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복종의무 위반 혹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으로 판명하였다.

4. 판례 및 재결에 나타난 부적격 교원의 유형 및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형

가. 부적격 교원의 유형 및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1)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2005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재결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복종·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청렴·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기타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에 관련한 결정순으로 나타났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련된 사항은 성관련 징계처분, 폭언·폭행·체벌·불화음주 추태·교통질서(음주, 뺑소니 운전 등)위반 관련, 명예훼손관련, 표절·도박·사기(알선) 등 관련, 위법행위사주(허위사실 유포 등) 및 선동 등이 주를 이루는 사건이다.

이 중에서 특히 성추행, 성폭행, 혼외관계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결정의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진 반면, 폭언, 폭행, 체벌 등의 경우에는 견책에서부터 파면,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결정되었다.

(2) 징계재심결정 중 두 번째로 많은 성실의무위반과 관련한 결정은 주로 직무태만, 직무불성실 등과 관련한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조퇴·결강, 회계 및 인사(평정) 문란, 직원·학생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성적·입학·출제 등 부정, 기타문제 등이다.

여기서는 직무 불성실의 경우 그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에서 해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징계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무단결근이나 조퇴 등 직무태만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해임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졌다. 회계 및 인사 문란의 경우에는 견책이나 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결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3) 세 번째로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학부모나 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고, 승진·채용·성적 등 내부금품수수의 경우에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임이나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내외의 유용 및 횡령의 경우에는 파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임이 주로 결정되었다.

대법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 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례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초등학교장이 그 지역사회 어머니회 및 육성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교직원에게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금품의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시 내렸다.

나. 영역별 부적격 교사의 유형과 징계대상 행위

공무원의 경우 징계시 의무위반 여부가 판단 조건이지만, 교사의 경우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한 점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징계결정이다.

교사의 자질은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해보면 크게 수업지도 영역, 학생생활지도 영역, 업무처리 영역, 대인관계 영역, 개인적 자질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수업지도 영역에서는 ① 전문지식 미비(수업내용 부실, 수업내용 부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 ② 수업계획 부재(부교재 수업, 교과내용과 수업내용의 불일치) ③ 새로운지식습득에 저항을 들 수 있다.

(2) 학생생활지도 영역에서는 ①인간에 대한 이해부족(학생에 대한 편애, 시험문제 유출 및 입학부정), ② 폐쇄적 교실행동(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체벌), ③ 생활지도 무관심(학교내 안전사고)이 있다.

(3) 업무처리영역에서는 ① 업무태만이나 부주의(직무불성실, 직장이탈, 업무상비밀누설,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결강), ② 직무명령 불복종(복종의무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4) 대인영역관계에서는 ① 동료교사와의 관계, ② 학부모와의 관계, ③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있다.

(5) 개인적 자질(교사 개인적 인성 및 자질)로서는 ① 성관련 문제, ② 금품수수, ③ 회계, 인사문란, 횡령, ④ 개인과외, ⑤ 개인채무관계, ⑥ 음주운전 음주추태가 있다.

5.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가. 수업지도 영역

(1) 수업지도 영역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부적격 교사는 수업중 교사의 발언, 수업교재의 채택, 수업지도능력의 부족의 경우가 있다.

(2)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첫째, 우리사회의 기본 가치와 윤리를 가르친다는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둘째, 해당 수업시간의 학습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셋째, 학생의 연령 및 성숙도에 어울려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교사의 발언이 적격한지, 혹은 부적격한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고의와 과실여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수업교재의 채택이 문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수업의 진행에 보조적인 역할로써 부교재를 채택한 교사가 주교재는 소홀히 하고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경우이다. 특히 교재의 경우에는 수업계획 시 설정한 수업목표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부교재의 경우 주교재와 구별이 될 만큼의 비중을 교과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고의로 학습지나 부교재를 채택하여 그 목적이 학생의 학습활동의 증진이 아닌 교사 개인의 수업부실이나 영리의 목적에 있다면 응당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수업지도 능력의 부족의 경우에는 첫째, 당해 수업의 대상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곤란한 정도와,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목표 달성도를 다져보아 수업지도의 효과성을 가능해 보아야 할 것이라. 물론 수업지도 능력을 가능하는 데에도 만일 수업지도 능력이 부족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교사의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구조적 문제, 학생들의 수준, 기타 환경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의와 과실의 여부 또한 가려보아야 한다.

나. 학생생활지도 영역

(1) 학생생활지도의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징계대상행위가 성적, 입학 등

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학생체벌의 경우이다.

(2) 성적이나 입학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금품, 향응 수수 대가성 재물의 교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위반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다.

(3) 성적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 등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구인이 오히려 특정 학생을 위해서 시험문제의 정답을 유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막대한 비교육적 영향을 끼치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전체 교원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음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4) 체벌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원이 허용하고 있는 체벌의 한계는 ①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②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③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체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위행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셈인데, 그 기준은 첫째, 교사가 체벌을 가함에 있어서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는지의 여부(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둘째, 체벌을 가한 신체의 부위(체벌을 가한 방법과 정도), 셋째, 체벌을 가하는 방법이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이었는지의 여부, 넷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이다.

(5) 인권문제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인정 한 경우나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결정·권고한 경우, 특정 종교학교에서 종교 활동의 필수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영역은 “건전한 사회통념”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에 관해 징계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기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 개인적 인성 및 품성 영역

(1) 교사 개인의 인성 및 품성 등의 문제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명 “뇌물성 촌지”의 문제와 특정 업체에 대한 “비리성 금품수수”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명목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을 전통적으로 존경하여온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사가 제자의 졸업을 전후하여 학부모로부터 그동안 자녀를 잘 지도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부받는 금품이 그 명목, 시기, 방법, 그 금품의 액수 여하에 따라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사교적 예의로서 허용된다고 볼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권유 혹은 강요하여 수수한 때에는 고의성을 조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학부모의 자유의지에 의한 금품 및 향응의 수수인 경우에는 교사의 과실여부를 따져보아 비위행위를 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성관련 문제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따로 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를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부적격 교사의 관련해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 다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그 행위가 고의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및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사의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음주와 관련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상습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나,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 등은 교사로서의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요인이 된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의 음주습관을 가진 교사나 음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의 가해자가 된 교사는 중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일회성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실을 적용하여 달리 징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사례 분석

가. 성실의무 위반 사건의 유형

첫째, 교과지도 및 수업영역에서는 교과용도서 사용에서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삭제한 행위, 수업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 행위, 교육방법선택에서는 수업시간 중 교과지도와 무관한 내용이나 윤리규범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행위, 등의 사건 유형이 있었다.

둘째, 평가·시험·성적관리 영역에서는 시험출제 및 감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지 못한 사건, 성적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한 사건, 시험문제 유출사건, 전년도 문제 재 출제, 기초학력진단평가 거부, 시험시간 준수 위반 등의 사건 유형이 있었다.

셋째, 근무태도 영역에서의 사건 유형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결강, 수업거부, 집단행동 등의 사건이 있었다.

넷째,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학생간의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못한 사건, 휴식 시간 등에 생활지도를 못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체벌

한 사건, 청소감독 지도 소홀,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등의 사건 유형이 있었다.

다섯째, 행정업무영역에서는 회계, 인사, 허위보고, 비위은폐, 절차와 권한 무시, 직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건 등의 유형이 발생하였다.

나. 교과지도 및 수업활동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사건 유형

교과용도서 사용 등에 관련된 사건으로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사건과, 수업활동 중의 사건으로 학생의 수업준비 부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사건, 교생에게 출제를 위임한 사건, 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주제로 토론수업을 하고 서식화를 거부한 사건,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 비리를 말한 사건,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하게 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수업활동에서 교원의 권리와 성실의무의 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문제이다.

(1)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삭제한 교원의 행위

중학교 교사가 교과서를 삭제지도하고 수업시간에 “남누리, 북누리”라는 편향적 노래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반 등으로 기각하였다.

(2) 수업시간 학생통제 불성실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교사가 수업 불성실 운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재심위에 해임처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위에서는 일부 징계처분사유는 징계의결로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배제징계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정직3월로 변경 결정하였다.

(3)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교원의 행위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해임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다.

다. 평가·시험·성적관리 등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사건 유형

전 학년도 출제 문제와 동일·유사한 출제를 한 행위, 시험시간 종료 후 학생에게 추가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교원의 행위, 교육실습생에게 시험 출제를 위임하고 수업을 임장지도 하지 않은 행위, 시험 감독중 반 전체 학생에게 답을 알려준 교사의 행위,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교사의 행위, 시험정답을 특정 학생에게 유출한 사건 등의 유형이 있다.

(1) 전 학년도 출제 문제와 동일·유사한 출제를 한 행위

고등학교 교사가 중간고사 문제 출제에서 전체 25문항 중 22문항을 전학년도에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재시험을 치게 한 행위

로 건책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으로 재심위원회는 학업성적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시험시간 종료 후 학생에게 추가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교원의 행위
중간고사 때 시험시간 종료 후 한 학생에게 추가로 답안을 작성토록 허용함으로써 시험 관리를 잘못하였고, 수업시간표 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학교장의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3) 교육실습생에게 시험 출제를 위임하고 수업을 임장지도 하지 않은 행위
교육실습생에게 중간고사 시험문제 출제를 위임하고 수업을 임장지도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이 학생소요사태를 유발케 하고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여 정직 1월로 변경하였다.

(4)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교사의 행위
학생 성적을 3개 학기 4회에 걸쳐 총 104점을 상향 조작 한 사유로 파면 처분을 당한 교사가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적조작이 고의적인 점, OMR 답안지 카드를 은폐하려 했던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처분은 상당하나 조작된 성적이 모두 원상태로 복구되어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학생이 없고,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경력 및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5) 시험정답을 특정 학생에게 유출한 사건
교사가 1999.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및 2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 정답을 특정 학생에게 유출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2. 6. 파면처분을 받고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소위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원으로서 명예와 도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원처분은 상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라. 근무태도에서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유형

교원이 병가를 내고 교육청에 가서 학교문제를 건의한 행위, 출근부 날인 거부 및 학습지도안 제출 거부 등의 행위,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명령을 어기고 평가를 못하게 한 교사의 행위,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 없이 방학중 국외여행을 한 행위, 교원단체 집회 참석차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의 사건 유형이 발생하였다.

(1)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허락한 담임교사의 법적 책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종강파티를 벌이도록 허락하여 감봉1월 처분을 받는데 대하여 이를 취소 청구하였는데 재심위원회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종강파티를 관행적으로 해 오면서 다른 교사도 참석한 것과 담임업무를 처음 맡은데 대한 업무미숙으로 이해하여 견책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2) 수업시간 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

물상수업시간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 달라는 여중학생들에게 모자 근처상간의 천륜을 어기는 음담패설을 한 교사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감경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심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교사본연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3) 초등학교 사회과 시간에 성교육중 은란한 표현과 과제를 낸 교사의 행위

학생들에게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으로 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4) 출근부 날인 거부 및 학습지도안 제출 거부 등의 행위

출근부 날인 거부, 학습지도안 제출 거부, 불법유인물 작성 배포, 반장임명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5)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명령을 어기고 평가를 못하게 한 교사의 행위

초등학교 교사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 학교장이 수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방해하여 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동법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2.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6) 교원단체집회 참석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고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여 견책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은 교원노조법과 피청구인의 지침이나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수차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하였다.

마. 생활지도 영역에서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유형

고등학교 자율학습시간에 학생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교사의 지도 의무 위반 사건, 고등학교 자율학습시간에 학생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교사의 의무 지도 위반 사건,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한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청소하다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교사의 지도감독의무 위반 사건, 유치원생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서 교사와 설치경영자의 책임사건, 일과시간 이후 학교 운동장에서 선수의 연습

중 투표환에 맞은 상해사건에서의 교원의 지도의무 위반 사건, 졸업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 시간에 학생간의 폭력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 학교시설 관리 하자로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사건,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학생 간 폭행상해사고에 대한 담임교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식시간에 동급생을 폭행상해 한 경우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건,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끼리 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다친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건,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를 교식 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교장, 담임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건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1) 고등학교 자율학습시간에 학생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교사의 지도의무

자율학습시간에 지도교원인 2명의 교원이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유인물을 배부하고 교무실에 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학생이 쓰러지면서 계단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 이 학교가 소속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청소시간에 학생끼리 장난하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사고에서 교원의 지도의무
여자중학교에서 청소시간에 담임교원이 청소지도를 하다가 교무실로 간 사이에 학생끼리 장난을 하여 교실과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한 학생이 베란다에서 유리창 바깥 면 청소를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뒤를 지나다가 실족, 추락하여 화단에 떨어져 경추 골절탈구 및 불완전 하체마비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학부모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3) 졸업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에 학생간의 폭력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눈을 실명한 사건

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날 학생주임과 각 반의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일 출발에 앞서 학교장이 훈화를 통하여 들뜬 마음에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숙소에 도착한 직후에는 입소식을 거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특히 실내에서 장난을 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으로서 감독 교사들이 식사교대를 위하여 이동할 무렵에 학생 숙소 방 안에서 학생간의 폭행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한 사건이다.

■ 정리하기

전문지식 미비나 새로운 지식습득에 저항하거나 수업계획이 부재하는 등의 수업능력 부족 교사, 학생에 냉소적인 태도, 폐쇄적인 교실행동, 생활지도에 무관심한 학생생활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교사,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학부모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시비를 붙거나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부족한 교사, 교사 개인적인 인성 및 자질이 부족한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법한 행위조건에 해당하는 부적격 교사의 개념에는 주로 행정가로서의 자질과 교사로서의 윤리·도덕적 자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적격교사라고 볼 수 있는 교사는 성폭행교사,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수준의 체벌을 하는 교사, 상습적으로 충지를 받는 교사, 학습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 교사, 학습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과지식과 지도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교사들이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을 전통적으로 존경하여온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사가 제자의 졸업을 전후하여 학부모로부터 그동안 자녀를 잘 지도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부받는 금품이 그 명목, 시기, 방법, 그 금품의 액수 여하에 따라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사교적 예의로서 허용된다고 볼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교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권유 혹은 강요하여 수수한 때에는 고의성을 조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학부모의 자유의지에 의한 금품 및 향응의 수수인 경우에는 교사의 과실여부를 따져보아 비위행위를 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평가하기

문제 1. 무능력 교사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학력의 부족, 수업 지도 면에서 무능하여 학습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볼 수 있다.
- (2) 학생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학급 경영상이나 학생 지도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볼 수 있다.
- (3) 상식이 없거나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가질 수 없어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볼 수 있다.
- (4) 근무, 복무나 품행에 문제가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뢰가 없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무능력교사라고 볼 수 없다.

해설 : 정답 (4)

근무, 복무나 품행에 문제가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뢰가 없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사이다.

문제 2. 부적격교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학생생활지도의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징계대상행위가 성적, 입학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학생체벌의 경우이다.

(2) 성적이나 입학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금품, 향응 수수 대가성 재물의 교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위반 등의 법리가 적용된다.

(3) 성적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 등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구인이 오히려 특정 학생을 위해서 시험문제의 정답을 유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막대한 비교육적 영향을 끼치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전체 교원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음을 명백한 경우 판례는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는 체벌의 한계는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정이 가능하더라도 체벌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해설 : 정답 (4)

체벌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원이 허용하고 있는 체벌의 한계는 ①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③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3. 뇌물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된다.

(3)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린다면 뇌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교사가 제자의 졸업을 전후하여 학부모로부터 그동안 자녀를 잘 지도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부받는 금품이 그 명목, 시기, 방법, 그 금품의 액수 여하에 따라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사교적 예의로서 허용된다고 볼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 정답 (3)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